

<부록1>

대통령 주요 연설문

- 제 15대 대통령 취임사(1998.2.25)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2000.3.9)
- 남북정상회담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2000.6.15)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연설(2000.9.18)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2.25)

-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관련 부분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
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
루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투자·관광·문화교
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
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
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
산되어야 합니다.

1,300여 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
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

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 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

(2000.3.9)

존경하는 피터 쾨트겐스 총장, 존경하는 교수 및 내외 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변영
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유서 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
수 및 학생 여러분과 더불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 라는
주제 아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
러분의 우정어린 환영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 대학 출신들이 지난 1948년 개교한 이래
동서독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독일 통일을 앞장서 이끌어 온 역사
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
해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분단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 통일에의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라인강의 기
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휩쓴 경제적 위기를 국민과 정
부의 헌신,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성공적으
로 극복했습니다.

1997년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800억 달러에 도

달했습니다. 1998년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금리·외환·증시 등이 모두 전례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년 내에 4%까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은 비록 독일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유사성 때문에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 온 중국·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완고한 폐쇄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먼저 성공

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온 서독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대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대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동서독간의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완화시켰습니다.

셋째, 서독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놀랍게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서 전 외무장관 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 통일 이후의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고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그것은 첫째, 엄청난 자금의 소요입니다. 2천억 마르크면 된다던 통일 비용이 10배나 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둘째, 구동서독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독은 경제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독과 전쟁을 한 일도 없고, 통일 전에 많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습니다. 동독 국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북한 밖의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서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의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 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요,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

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통일방식은 앞서 말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독일의 지도자들로부터도 많은 찬성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도 개방과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는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화해·협력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을 포함해 전세계가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북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을 TV화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여 굶주린 북한 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작년에는 사상 최고인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시작되거나 협상중입니다. 금년에는 서해공단의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남한의 대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곳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머지않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과의 국교 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경제개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 분리원칙에 의한 민간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 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한국에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국민은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먼저 이룩한 독일 국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자의 억압 속에 신음할 때 독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리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재자와 싸우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30년의 망명·연금·감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국민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내 일과 같이 나와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가장 충실하고 우정이 넘친 친구로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자유대학 여러분과 함께 새천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

(2000.6.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환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 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의 환대를 저에게 베풀었습니다. 공항에 직접 출영하고, 오늘 돌아올 때도 공항까지 환송을 나와 주었습니다. 회담과정에서는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평양시에 들어갈 때 60만, 나올 때 30~40만 등 모두 약 100만명의 평양 시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평양 시민이 같은 혈육의 정으로서 환영해 준 데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감사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거의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국내의 TV도 보고 신문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 보도되는 것이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열망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니 무척 기쁩니다. 나는 우리 언론에 대해

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양 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공을 못했을 때 그 엄청난 파장, 우리가 성공했을 때 가져 올 세계사적 큰 발전과 전환,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데 온갖 성의와 지혜를 다하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수행한 우리 보좌진이나 특별수행한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저의 일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도 가 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살아 왔건간에 마음속으로는 남쪽 동포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단일민족으로서 살아 왔습니다. 통일을 이룩한 지도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가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조 말엽에 국민이 단합하고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내부가 산산이 분열되고 근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망국의 설움을 얻고 일제 35년과 분단, 6·25전쟁, 그리고 또 대립, 100년의 양화(殃禍)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시대에 들

어가고 있고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 같은 민족끼리 내부에서 힘을 탕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하늘도 트고, 길도 트고, 항구도 트고서 서로 왕래하고 협력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높은 교육적 전통, 문화 창조력 등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지식기반 시대에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제 4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4대국을 우리 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때 우리가 정신차리지 못하고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화통일도 안 되고 흡수통일도 안 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 하면서 차츰 통일의 길로 나가자. 민족을 21세기에는 세계 일류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역설하니까 김 위원장도 동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의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보, 대한민국의 주체성, 여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되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협력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중국에는 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자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핵 이야기도 했고 미사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 대화는 매우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북공동선언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7·4공동성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7·4공동성명 발표한 것이 28년 전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느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또 1992년 2월에 남북이 합의서를 발표해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 등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쥔 것부터 실천에 옮기자. 이 정상회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 주는 회담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자주·통일·평화 등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이제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2항 이하에는 좀 구체적인 것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합의했습니다. 그 제2항은 우리가 주장해 온 남북 연합입니다. 즉, 2체제 2정부를 현재대로 놓아 두고 남북 양쪽에서 각료급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 회의를 구성해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1980년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대통솔권을 다 가져야 한다. 남북 양쪽의 지방정부는 내 정권만 가져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이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북한은 이 점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연방이 갖겠다는 외

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장한대로입니다. 이것은 상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 대표가 같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 보자” 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사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남과 북은 오는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문장 해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실향민,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문제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번 8·15까지 북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통크게’ 한 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한 장기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소. 먼저 잘 하시오” 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달부터 적십자사가 곧 가동됩니다. 이것도 오늘 합의했습니다. 내가 서울 돌아가는 즉시로 적십자사에 북하고 접촉하라고 요청하겠다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앞으로 그 범위가 얼마만큼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렇게 북한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문제를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건설하고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항만·통신 등을 해결해 북한에 공단을 조성해서 진출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한 내부 경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도 남도 다같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기차가 왜 런던이나 파리를 못 갑니까? 경의선·경원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만주의 기차들은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경의선은 불과 25km정도밖에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으면 곧 갈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30% 절감되고, 수송 날짜가 훨씬 줄어듭니다. 북한하고만 해결되면 우리는 유럽까지 뚫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철(鐵)의 실크로드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경제의 번영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북한의 노동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은 신문에 여러번 났습니다. 노임도 훨씬 저렴합니다. 남한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북한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 도움이 됩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철칙으로 해야 할 것은 남쪽만 좋아도 안 되고 북쪽만 좋아도 안 됩니다. 양쪽 다 좋아야 오래 가고 그래야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윈-윈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해 나가기로 김정일 위원장과 확실히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남북에서 임명한 당국자들이 곧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합의에는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중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인들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만 왔다 가고 김 위원장은 안 오면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세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다같은 우리 강산이고, 다같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고, 다같은 한국 사람의 생각과 인정과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하고 아주 상이한 사상적 토양에서, 그런 정치체제 아래서, 그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 사람 특유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빨리 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해놓고 7·4 공동선언이 28년간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도 우리 동포다, 그들도 우리하고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일치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아 세계 일류국가로 웅비해 보자.

주변 4대국이 이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모두 우리의 시장이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적기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지식기반 시대에 이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합니다.

안보는 철통 같이 하되,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화해·협력하기 위한 안보,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조상들은 물론 하늘도 도와서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반도 전체의 조국을, 번영된 조국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 기공식 연설

(2000.9.18)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민족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끊겼던 민족의 동맥을 다시 잇습니다. 남북으로 끊어졌던 철도와 육로를 다시 묶는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으로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실의와 비원(悲願)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어진 경의선을 다시 잇는 오늘의 이 기공식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과 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애끓는 외침이 실현되는 민족의 대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19세기말 민족의 단합과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안으로는 서로 분열 · 상쟁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외면했다.

그 결과 일제 35년과 이로 인한 국토분단과 남북대결로 이어지는 100년의 한과 고통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해야한다. 적화통일도 안되고 흡수통일도 안 된다.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다.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에 힘쓸 때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모두 이에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당대의 불행은 물론, 후손들에게 또다시 끝없는 좌절과 고통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된 부끄러운 조국을 물려 주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하고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과 북은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나씩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재결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장완화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이 이 달 안에 열립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여건을 만들기 위한 경제회담도 개최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내년 봄에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협력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경의선을 55년만에 다시 잇는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명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저는 온국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의선의 복원은 남과 북 모두에게 커다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극동의 작은 주변국가에서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 나아가 세계

의 중심국가의 하나로 당당히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의선의 복원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에만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한반도 전체로 그 무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이를 통해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해 제품이 생산되어 남한과 전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생산 원가도 저렴해져서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북한도 남한과 협력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본과 경영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자원과 우수한 인력이 서로 합쳐지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북한의 경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민족 전체가 함께 번영하고, 장차 있을 통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뜻깊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경의선의 복원은 또한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대륙에까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척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75%, 전세계 에너지 자원의 4분의 3이 우리 주변의 유라시아 대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의선의 연결로 우리는 이 광대한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고 수송기간도 많이 단축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철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싼 원료와 유망한 시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한반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

경의선의 복원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의선은 반세기 동안 허리가 끊긴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이 화합과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뢰 제거작업은 동족상잔의 상흔(傷痕)을 지우는 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신뢰의 싹이 돌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싹은 장차 평화통일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의선이 완공되면 남북한 사이의 물적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문화와 체육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교류가 늘어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게 됩니다. 경의선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야말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장차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큰 길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전 커다란 감격과 눈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 보았습니다. 전세계로 방송된 이산가족 상봉장면이야말로 평화의 21세기를 상징하는 장엄한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경의선의 연결은 전세계인들에게 한반도에서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함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대와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의 장엄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망이었던 평화와 번영 속에 빛나는 한반도 시대에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꿈을 현실로 이룩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성의가 요구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수많은 선열들의 열과 역사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대도약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엄혹했던 IMF 경제위기도 1년반만에 극복해 낸 우리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저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나는 한반도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읍시다. 오늘 기공하는 경의선이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룩하는 찬란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